

불황형 흑자로 실적 고비 넘긴 카드사, 수수료 압박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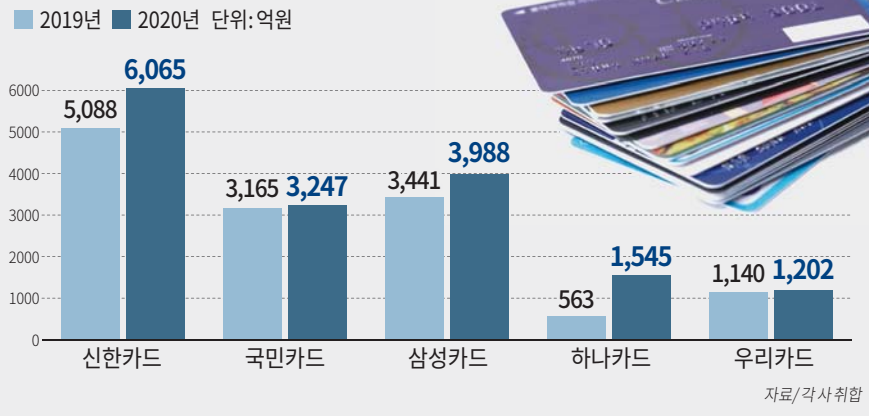
작년 5개 카드사 순이익 1조6047억 실적개선 비용 줄여 두 자릿수 성장 카드 수수료율 인하 명분에 '근심'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두 자릿수 성장한 순이익을 시현했다. 그러나 실적개선이 비용을 크게 줄이면서 이뤄낸 불황형 흑자인 탓에 마냥 좋아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5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카드)는 순이익 1조6047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조3397억원을 기록한 전년보다 19.78% 성장한 수치다.

각 사별로는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가 전년 대비 19.2% 증가한 6065억원

카드사당기순이익 현황



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신용카드 부문에서 전년보다 수익 증가율이 2.9%에 그쳤지만, 할부금융과 리스에서만 각각 9.4%, 44.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순익 성장률로만 봤을 때 하나카드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하나카드는 지난해 순이익 1545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74.42% 급증했다. 순익 급성장 요인으로 판관비 절감은 물론 자산건전성 확장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외 매출 대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비용 및 판관비 절감은 물론 자산건전성 확장, 리스크 관리 강화 정책을 통해 양호한 실적을 시현했다"며 "디지털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 비용 절감, 회원기반 수익성 다양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소비패턴의 변화로 온라인 업종 취급액도 전년보다 약 3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삼성카드의 순이익은 3988억원으로 전년보다 15.9% 증가했으며, 우리카드와 KB국민카드 역시 각각 1202억원, 3165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보다 5.44%, 2.5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이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카

드업계가 판관비 등을 크게 낮추면서 증가한 실적을 이뤄냈기 때문이다. 실제 실적 성장이 눈에 띄었던 하나카드의 경우 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비용인 판관비에서만 전년보다 23.9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시작하는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한 적격비용 산출에서 수수료 인하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전부터 카드 부문에서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사업다각화와 판관비 축소에 공을 들여왔다"며 "그럼에도 숫자로는 수익이 잘 나왔다는 사실이 수수료 인하 논의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전했다.

/이명석 기자 ysl@metroseoul.co.kr

교보생명, 아마존 품고 '디지털 전환' 박차

아마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방대한 빅데이터 분석·인프라 확장 기능

교보생명이 세계 최대 IT 기업인 아마존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해 새로운 디지털 환경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교보생명은 언제 어디서든 방대한 빅데이터 분석과 자유로운 인프라 확장이 가능하도록 자사의 빅데이터 시스템과 중요 워크로드를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 AWS)로 이전한다고 9일 밝혔다.

국내 보험업계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AWS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프로젝트 사업을 위해 교보생명은 AWS의 프리미어 컨설팅 파트너사인 메가존클라우드와 교보정보통신을 주사업자로



(왼쪽부터) 합기호 AWS코리아 대표, 권창기 교보생명 DT지원실장,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표가 교보생명-AWS-메가존클라우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보생명

선정했다. 최근 AWS 및 메가존클라우드와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퍼블릭 클라우드(Public Cloud)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공중의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서버, 스토리지 등의 컴퓨팅 자원을 빌려주는 형태의 서비스다.

본 사업의 첫 번째 단계는 교보생명의 빅데이터 시스템을 AWS로 확대 이전하는 것이다. 이로써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 및 실시간 데이터 수집 플랫폼을 구축하고, 통합 분석 개발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한화생명 '수술비중신보험'... 보장 질환 ↑

업계 최초 수술 관련 특약 세분화

한화생명이 빈도수 높은 수술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선보였다.

한화생명은 '한화생명 누구나 필요한 수술비중신보험 무배당(수술비중신보험)'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수술비 중신보험은 중신보험임에도 별도의 특약 없이 암 및 뇌혈관·심장질환으로 인한 수술을 보장한다. 특약을 추가하게 되면 수술의 범위 또한 약 90여종으로 확대할 수 있다.

또 생보업계 최초로 수술 관련 특약을 세분화해 관혈·비관혈의 수술형태나 암·심장·뇌혈관 또는 간·폐 등 질병부위별로 고객이 원하는 보장만 직접 선택해서 추가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수술비 중신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으로 인해 관

혈수술을 받을 경우 가입한 사망보장 금액의 80%를 선지급 받아 생 존치료에 전담할 수 있다.

특히 특약으로 요실금 수술에 대해 연간 1회 한도로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하는 점도 특징이다.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고 고객의 니즈가 높은 관절염이나 백내장 등의 고빈도 수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수술비 중신보험은 남녀 65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한화생명 성운호 상품개발팀장은 "암, 6대 질병 등 90여 가지 질병에 대하여 관혈 및 비관혈 수술을 주계약 및 다수특약에서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라며 "보장 한도를 획기적으로 늘린 상품인 만큼 소비자들의 니즈가 큰 수술보험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설 연휴 금융서비스 일시중단 안내

2.11(목) 02시 ~ 2.15(월) 06시

- 홈페이지, 모바일창구, 온라인보험 및 자동화기기(ATM)
- 보험계약조회, 보험료납입, 보험계약대출, 보험금청구, 농협생명 보험수련원 예약 등

